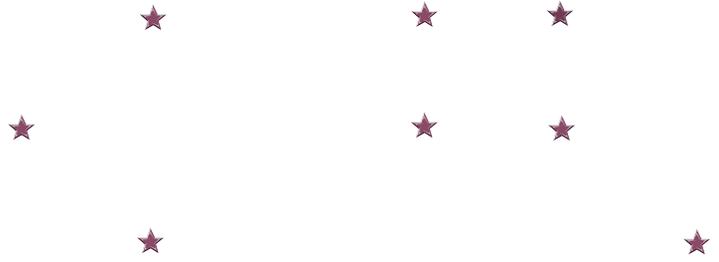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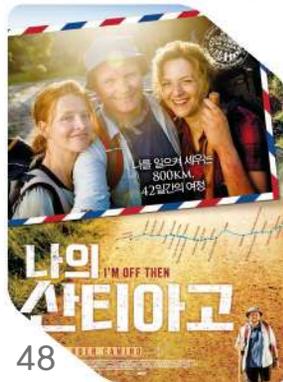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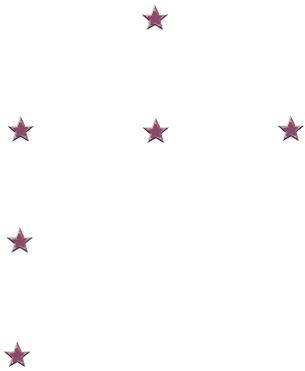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Contents





R.O.K AIR FORCE
VOLUME 474

2017 December

공군 IN

- 06 Pioneer's Opinion 군복무의 가치(장익현 DIMF 이사장)
- 08 기획특집 ①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 20 포토 프레임@AF 11월의 참모총장 동정
- 22 Air Force Monthly 11월의 공군 소식
- 24 기획특집 ② 월간「공군」이 선정한 2017년 공군 10대 뉴스
- 26 기획특집 ③ 일격필추!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 28 기획특집 ④ 공감 사진전(Feat. 라미스튜디오)
- 30 하늘을 향한 시선 나의 공군 유산답사기
- 32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겨울 호수
- 34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그 어디든 보급이 필요한 곳이라면!
- 36 조인, 조인! '박이철' 베스트셀러 작가
- 40 신고합니다! 18비 항공장비반 이병 양준영 & 병장 김태순
- 42 Fitness 고혈압 관리법



GLOBAL & INSIGHT

- 44 Air-power Report 도약을 꿈꾸는 중등훈련기 끝판왕 : Pilatus PC-21
- 46 공군 재무관리본부 2018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앞)
출격하기 위해 걸어가는 전투조종사
사진 하사 김재겸

커버스토리
글 중위 이준건(홍보과)

CULTURE 36,5

- 48 Hollywood English 나의 산티아고
- 50 트렌드가 보인다 드라마 커플이 현실로? '송송' 커플을 소개합니다

발행일자 2017년 12월 1일(통권 제474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양근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한상균
편집감수 대령(진) 윤영삼, 소령 박윤서
기획·편집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7110475)
(910-4504, 042-553-4504)

OPINION

- 52 생각하는 그림 실패를 축하합니다
- 54 담벼락 만남
- 56 책 읽는 공군 앵무새 죽이기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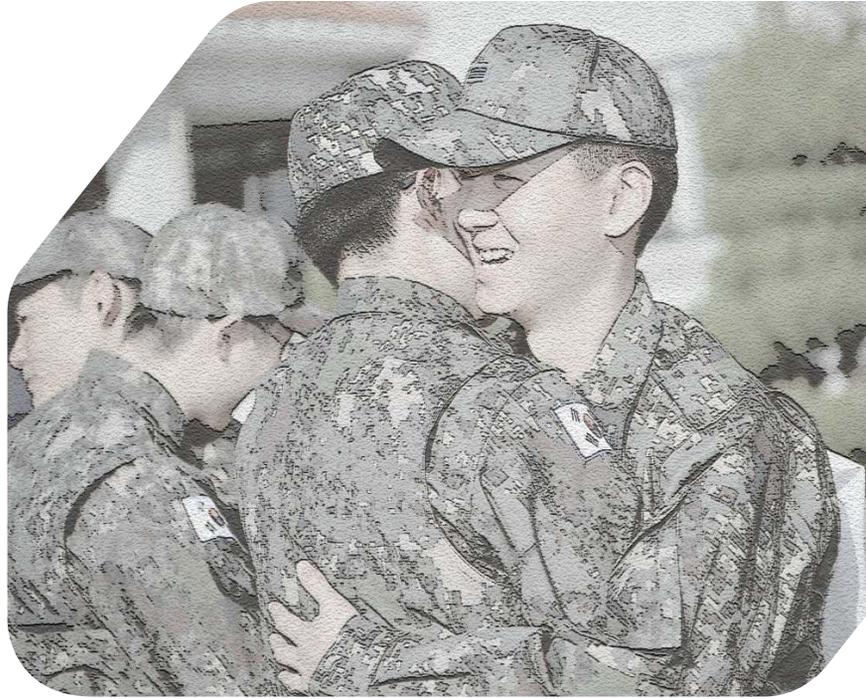


Pioneer's Opinion

군복무의 가치

글쓴이는 공군 학사장교 77기로 임관하였으며, 정훈장교로 3년간 복무한 뒤 전역했다. 이후 수성문화재단 이사, 대구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거쳐 제49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장익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군복무의 가치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구시내 전 공연장에서 '제11회 대구국제 뮤지컬페스티벌(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이 개최되었다. 9개국에서 출품된 26개 작품, 95회의 뮤지컬 공연으로 이루어진 제11회 DIMF를 마친 후 여러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제의가 있었다. 그들의 인터뷰 중에 빠지지 않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변호사가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축제를 이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나의 문화적 감성은 공군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했던 약 3년여 기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했던 것 같다.

나는 공군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특기교육과정에서 배운 '교수법'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경험은 변호사가 된 후 수많은 법률강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고, 정훈장교로서 방송장비를 다루고 익혔던 경험은 방송출연을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전투비행단에서 정훈실을 이끌었던 경험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고, 장교로서 익힌 리더십이 없었다면 '대구지방변호사회'나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여러 단체의 리더로 활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한 늦깎이 군인이었다. 동기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군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은 나를 설레게 하였고, 어차피 해야 할 군복무를 제대로 해보자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군복무의 가치에 대한 각성이 찾아왔던 것이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군복무 기간이 결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군대 업무 중에는 군대가 아니고서는 결코 경험해 볼 수 없는 분야들이 많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 그리고 계급적 권위와 집단의 결속을 강조하는 군대문화에 적응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들은 전역 이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군복무 중 스스로 이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군복무의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들에게 군복무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군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의 궁극적 목표인 전투력 강화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이켜보니, 어느덧 전역한지 3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첫 부임지였던 '제16전투비행단'과 이후 전역할 때까지 근무했던 '공군본부 정훈감사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공군은 나의 사랑이자, 나의 자부심이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글·감수
중령 정재성
(작전계획과)



편집
중위 이준건



사진
하사 김재겸



직접 보기 전까진 보이지 않는다!

스텔스 전투기 F-35A

“지금까지의 영화는 잊어라!” 새 영화가 출시되었을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2018년의 대한민국 공군 역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군은 잊어라! 더욱 강력한 대한민국 공군이 온다!’

201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공중급유기와 중고고도 무인기 등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의 2017년 12월은 종합과 결산의 달인 동시에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35A, 공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중급유기, 새 정찰자산인 중고고도 무인기. 새로운 공군 전력의 ‘시작의 현장’을 찾아가 보자.

지난 서울 ADEX 2017에서 F-22와 더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전투기가 있으니 바로 F-35A이다. 이 전투기의 으뜸가는 특징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매우 적은 레이더 반사율을 가졌기 때문에 적보다 먼저 보고 공격할 수 있으며, 방공망의 탐지를 피해 중심 깊숙이 정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또,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적 지역에서 아군의 안전한 임무를 위한 전자제밍 및 감시·정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휘 통제기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처럼 F-35A는 킬 체인(Kill Chain)¹⁾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다.



1)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해 적 미사일 발사 징후 및 표적을 탐지한 뒤 신속하게 목표물을 공격하는 일련의 타격체계. 킬체인은 ‘공격 징후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 수행됨. (출처 : 공군 군사용어사전)



◀ 서울 ADEX 2017에 전시된 F-35A

“킬체인 전력의 핵심, F-35A가 최초로 인도되는 해”

공군본부 방위사업협력과 F-35A도입 사업담당 임재철 중령(진)

AF : F-35A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임재철 중령 : F-35A 기종 결정 이후 스텔스 항공기에 대한 작전운영개념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운영 기지 건설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도입을 위한 조종사와 정비사를 선발하여 국내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원활한 전력화를 위해 연 2회 사업관리회의와 기지구축실무회의를 미국·한국에서 실시했으며, 실무회의체(Working Group)가 한국과 미국에서 연중 10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AF : F-35A의 도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임재철 중령 : F-35A는 현재까지도 일부 비행시험평가가 진행 중인 최신에 전투기입니다. 이로 인해 美정부는 F-35A 구매국에 매우 엄격한 보안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안정책을 지키며 항공기를 전력화한다는 점이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어려운 점이지만, 보안관련 여러 담당자가 올 한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AF :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될 F-35A의 사업 담당자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자세를 한 말씀해주세요!

임재철 중령 : 2018년은 킬 체인 전력의 핵심인 F-35A가 최초로 우리 공군에 인도되는,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원활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



F-35A도입 사업담당
임재철 중령(진)





연료가 부족해? 나만 믿어!

공중급유기 A330 MRTT

다국적 연합 훈련이자 대한민국 공군이 직접 알래스카까지 날아가는 대여정,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과 관련된 기사를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느껴질 사진이 있다. 바로 공중에서 길쭉한 무언가(?)가 F-15K에 연료를 채워 넣고 있는 사진이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찔하고 독특한 사진인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주인공인 공중급유기가 2018년 대한민국 공군에 도입된다.

공군에서 '18~'19년에 걸쳐 도입하는 공중급유기는 에어버스 D&S사(社)의 A330 MRTT 기종이다. 전장은 59m, 전폭은 60m에 달하는 대형 기체로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는 24만 파운드에 달한다. 사전에 약속된 지점에서 수유기와 조우하여 연료를 공급하며, 이를 위해 조종사 2명과 급유통제사가 함께 탑승하여 급유 붐(Boom)을 조작한다. 이 공중급유기는 공군의 주요 F-16과 F-15K, 향후에는 F-35까지 공중급유를 실시할 것이다.

공중급유기는 연료제한으로 인한 전투기의 단점들을 해결해준다. 대표적으로, 체공시간과 작전반경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 인해 연료탱크를 달지 않고 대신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그만큼 공군 전투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RTT 공중급유기는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과 82,000파운드의 화물 수송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인 재해와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중에서 급유를 받고 있는 F-15K



▲ A330 MRTT 공중급유기

“공군의 숙원사업, 공중급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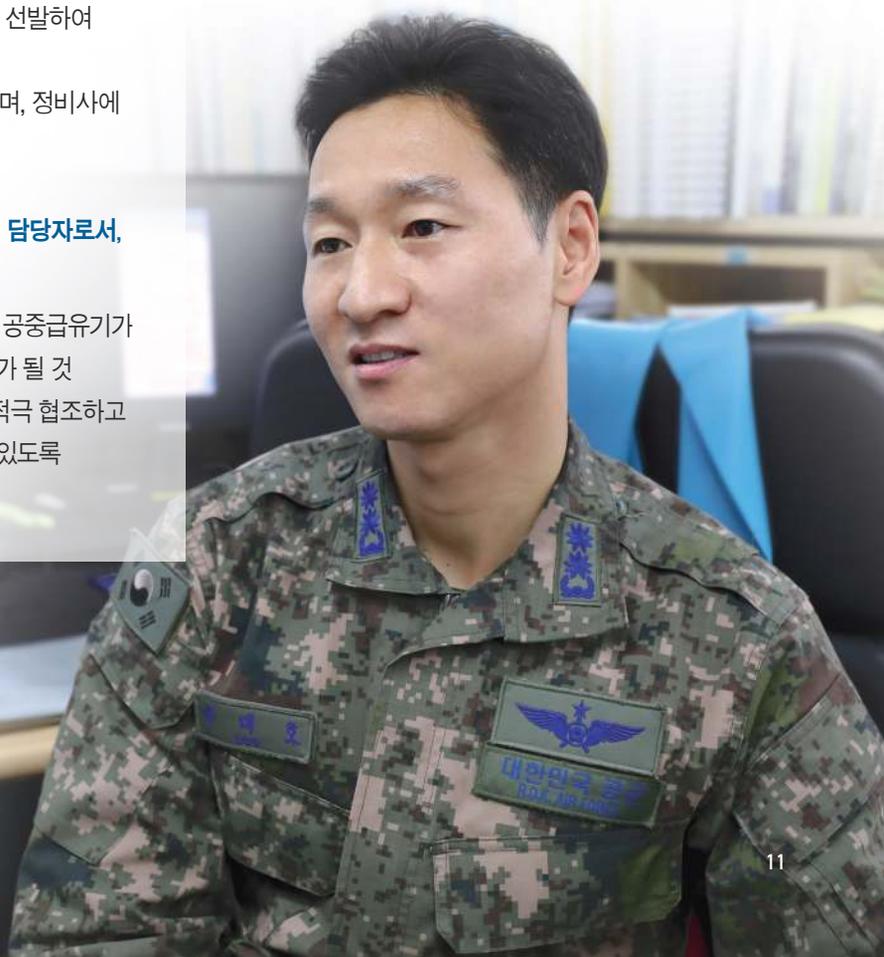
공군본부 공중급유기 사업담당 유대호 중령

**AF :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대호 중령 : 공중급유기의 기종을 결정한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작전 운영에 맞춰 세부 항공기 형상을 확정했으며, 항공기 도입을 위한 조종사·정비사·급유통제사를 선발하여 대형항공기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급유통제사는 스페인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비사에 대한 교육은 2018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AF :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될 공중급유기의 사업 담당자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호 중령 : 2018년은 공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는 최초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전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F**





정찰에 대한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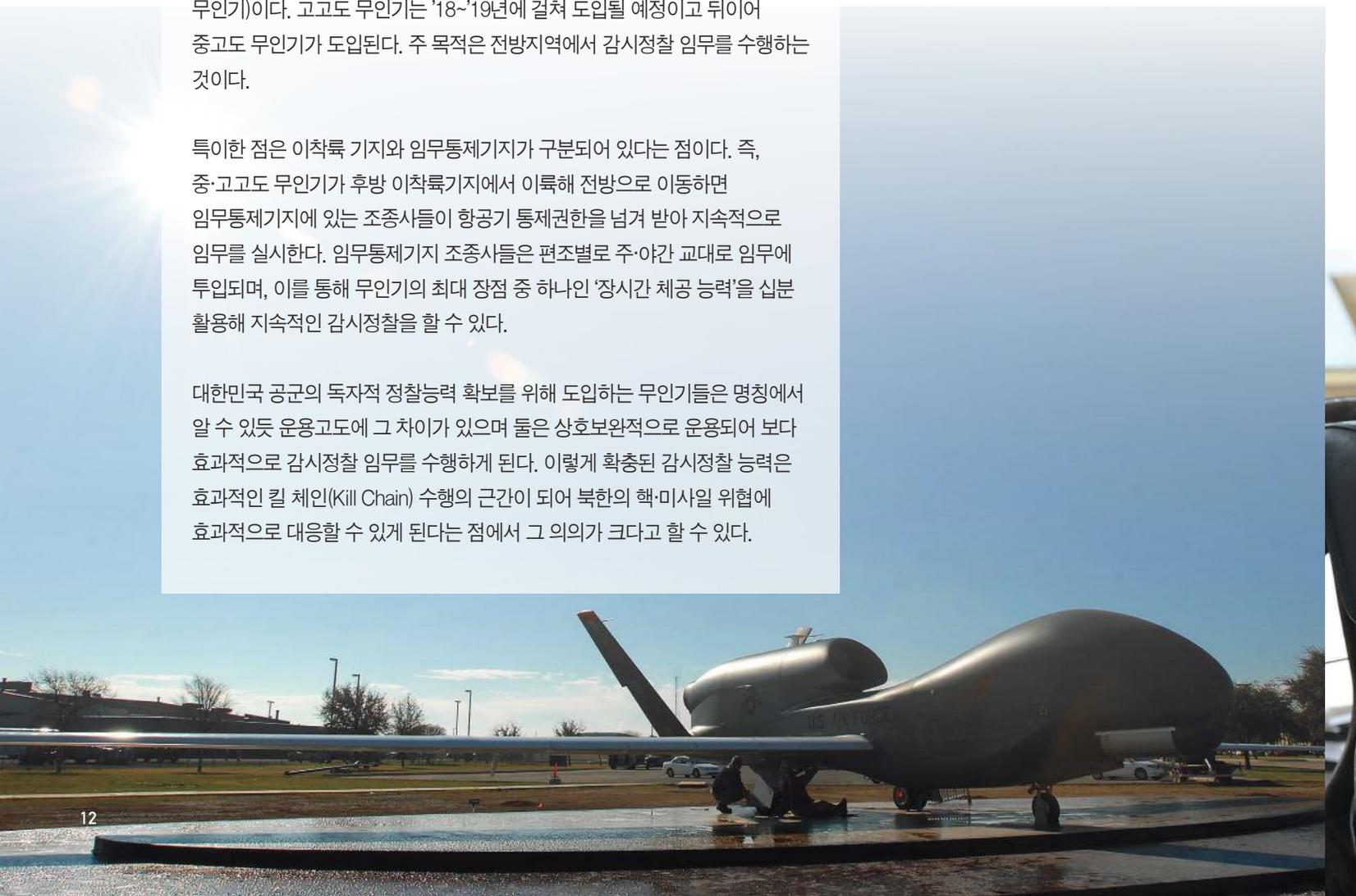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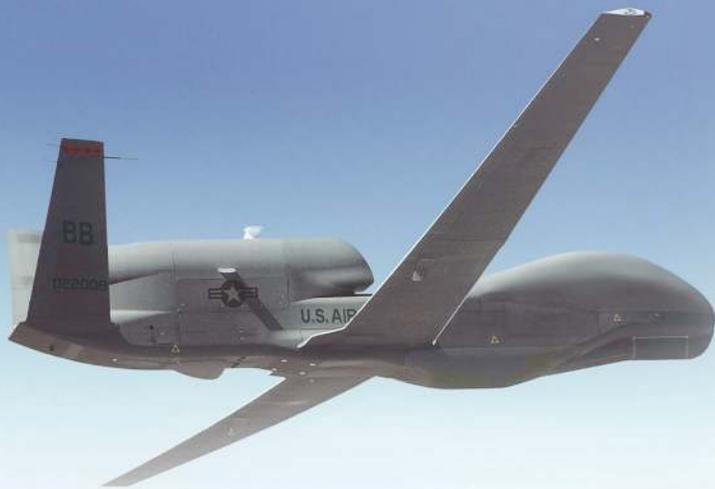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킨 온라인 게임 롤(LOL: League of Legends)을 비롯해 이제는 신화가 된 전략게임 스타크래프트(Starcraft)까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에서 고수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여러분! 정찰하세요, 정찰! 정찰이 중요해요!’ 그야말로 정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2018년에 더욱 막강한 정찰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중·고고도 무인기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고고도 무인기의 정확한 명칭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이하 고고도 무인기)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Mid-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s, 이하 중고도 무인기)이다. 고고도 무인기는 '18~19년에 걸쳐 도입될 예정이고 뒤이어 중고도 무인기가 도입된다. 주 목적은 전방지역에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착륙 기지와 임무통제기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중·고고도 무인기가 후방 이착륙기지에서 이륙해 전방으로 이동하면 임무통제기지에 있는 조종사들이 항공기 통제권한을 넘겨 받아 지속적으로 임무를 실시한다. 임무통제기지 조종사들은 편조별로 주·야간 교대로 임무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무인기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장시간 체공 능력’을 십분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정찰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의 독자적 정찰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무인기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운용고도에 그 차이가 있으며 둘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확충된 감시정찰 능력은 효과적인 킬 체인(Kill Chain) 수행의 근간이 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

공군본부 방위사업협력과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담당 김창진 중령

AF : 중·고고도 무인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창진 중령 :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자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한 번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고고도 무인기는 도입 자체가 미 정부의 승인사항인데다가 관련된 보안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운영 및 정비절차도 기존 항공기와는 많이 달라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AF : 그렇다면 중·고고도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창진 중령 : 사업 착수 이전부터 우리 공군의 요원들이 미 공군의 무인기 운용기지를 수차례 방문해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훈련체계를 공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미 공군 및 제작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고도 무인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지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훈련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AF : 2018년부터 새로 도입될 중·고고도 무인기의 사업 담당자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자세를 한 말씀해주세요!

김창진 중령 :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기체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군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개발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중·고고도 무인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업 담당자로서, '지금 내가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글
중위 이준건
(홍보과)

사진
강원도청

취재지원
중위(진) 김도훈
(18비 정훈실)



2018 평창올림픽 대비태세 이상 무! 제1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

로봇카메라가 진부역(KTX) 안으로 들어간다. 이어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역사 밖으로 폭발물을 이동한다. 이어 폭발물을 향해 발사된 물포는 폭발물을 성공적으로 분쇄한다. 이로써 진부역에 있는 폭발물은 안전하게 제거되었다.



▶ 진부역(KTX)에서 실시한 18비 폭발물처리반의 폭발물 제거 훈련

10월 31일(화)에서 11월 1일(수)까지 진행된 제18전투비행단 폭발물처리반(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의 테러대응 훈련이 진행되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공군의 폭발물 전문가, EOD반이 출동한 것이다.

평창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누군가는 '아직도 2달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군에게는 이미 또다른 '시작의 현장'이다. 많은 인구가 몰리는 만큼 테러범의 위협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 18비 폭발물처리반장 원종철 중위(준사관



여기는 “외로운 늑대처럼 불특정 인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또한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며 그 위험성을 알렸다.

대테러 위협 중에서도 폭발에 의한 테러는 발생하는 즉시 많은 피해를 남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한데,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경찰특공대와 군(軍)만이 갖고 있다. 원 준위의 설명에 따르면,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폭발물 처리반은 영동지역의 대테러 대비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임무완수를 위한 폭발물 처리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장비를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사태에 대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원 준위는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밝혔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성공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가슴에 담고 매 순간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의 임무 완수가 안전한 대한민국과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평창올림픽은 2018년부터 시작이지만, 안전한 평창올림픽을 대비하는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1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글
중위 이준건

사진
중사 홍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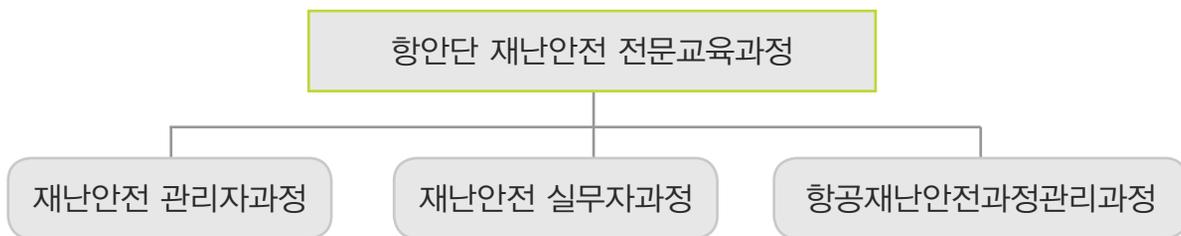


취재지원·감수
5급 황진태



공군을 넘어 국민의 안전 교육까지! 확대되는 항공안전단의 안전관리 교육과정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난.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사회재난이 있다.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그중에서도 '항공재난'은 공군 항공안전단(이하 항안단)이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야로, 지난 2016년 7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그해 11월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을 군(軍) 최초로 개설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은 재난안전 실무자과정과 재난안전 관리자과정으로 나뉘는데, 항안단은 공군의 특성을 살린 '항공재난안전과정관리과정'을 추가하여 올해 총 3개 과정 5개 차수를 운영했다.



늘어난 수요에 발맞추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그 차수를 더욱 확대한다. '16년~'17년 입과 신청자는 570여 명에 이르며, 여기에는 공군은 물론 육해군, 공공기관, 민간인까지 포함된다. 특히, 항안단이 야심차게 내놓은 '항공재난안전과정'에는 총 60명 중 40여 명이 타군이거나 공공기관 관계자·민간인이었다. 이렇듯 크게 늘어난 교육수요에 발맞춰 항안단에서는 5개였던 교육 차수를 2018년부터는 8개, '19년부터는 10개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군 최초의 안전교육기관’에 도전장을 내밀다

지난 5월 30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정책에 의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안전교육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인가 안전교육기관’에서 대신 교육을 하게끔 했는데, 바로 여기에 항안단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항안단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군 최초의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개설에 이어 전군 최초의 안전교육기관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12월 항안단의 ‘시작의 현장’이다. 행안부 인가 안전교육기관으로까지 지정될 경우, 항안단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교육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다면 항공안전단은 무엇을 위해 안전교육에 열성을 다하고 있을까? 황진태 재난안전교육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항공안전단의 비전은 국가급 안전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 안전을 선도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정예공군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항공안전을 위해 지난 22년간 험없이 달려온 공군 항공안전단. 항공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2017년 12월, 이미 시작되었다. **AF**



▶ 재난 안전교육 팀장 황진태 사무관



▶ 17-2차 재난안전 관리자과정 수료식



공군 IN

기획특집 1

끝이 아닌 시작의 현장을 찾아서

글
중위 이준건

사진
하사 김재경

취재지원
대위(진) 박지완



날개를 펴고 비상할 준비를 끝낸 보라매

예비 소위, 공사 66기 사관생도를 만나다

보라매가 첫 날갯짓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정말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제야 멋진 보라매로서 비상하는구나!' 하는 설렘도 함께 느낄 것이다. 예비 소위로서 비상하기 전,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을 보라매들을 만나보았다. 졸업을 앞둔 공사 66기 사관생도들의 '시작의 현장'을 찾아가보자.



AF: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병철 생도 : 안녕하세요? 졸업과 임관을 앞두고 있는 공사 66기 4학년 2중대 민병철 생도입니다.



김소형 생도 : 4중대 김소형 생도입니다.



신양환 생도 : 3중대 신양환 생도입니다.



문예은 생도 : 2중대 문예은 생도입니다.

▲ 좌에서부터 신양환·문예은·민병철·김소형 생도

AF : 2018년 소위 임관을 앞두고 사관생도로서 마지막 12월을 보내는 심정은 어떠한가요?

민병철 생도 : 길게만 느껴졌던 4년의 생도생활이, 뒤돌아 생각해보니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쉬웠던 일들보다는 즐거웠고 보람을 느꼈던 일들이 기억에 남네요. 특히 성무철인정기를 4년 내내 완주한 것과 무용기에서 우수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소형 생도 : 내년이면 벌써 졸업이네요. 1학년 때는 '언제 졸업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졸업이 다가오니 설레는 감정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요즘은 임관 후의 삶도 규칙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생활패턴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신양환 생도 : 지난 생도생활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학년 시기가 많이 생각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들어서며 '어떤 장교가 돼야 할까?'를 항상 고민하며 생도생활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기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문예은 생도 : 빨리 졸업하고 싶기도 하지만, 막상 졸업하면 사관생도로 지냈던 시절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동기·후배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기말고사와 졸업논문 준비로 바쁘지만, 잘 마무리한 뒤에는 동기·후배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AF : 임관한 뒤 어떤 장교가 되고 싶나요?

민병철 생도 : 임관 후 비행훈련과정에 입과하게 됩니다. 학생조종사로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수료하겠습니다.

김소형 생도 : 무엇보다 계속 성장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생도 시절의 명예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다짐과 의지를 갖고 스스로에 만족하지 않는 장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양환 생도 :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솔선수범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발전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문예은 생도 : 공군에 도움이 되는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진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F : 2018년에 비상할 예비 소위로서, 2018년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해주세요!

민병철 생도 :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2018년입니다. 학생조종사로서 수많은 역경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신임장교가 되겠습니다!

김소형 생도 : 이제는 정말 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공군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배울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신양환 생도 :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으로서 많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문예은 생도 :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정예공군 장교가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앞으로 저도 따라 걸겠습니다. 필승! **AF**



📷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참석

참모총장은 11월 1일(수) '한국의 국방개혁과 항공우주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20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은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제시된 고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항공우주력 건설에 반영해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순시

참모총장은 11월 2일(목) 대천 사격장에서 실시된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현장을 순시하고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제4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참모총장은 11월 7일(화) '6·25전쟁에서 UN 공군의 항공작전'이라는 주제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공군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6·25전쟁 당시 UN 공군의 활약상과 전훈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과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주임원사단 회의 참석

참모총장은 11월 9일(목)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 주임원사단 회의에 참석하여 각급 부대 주임원사들과 부서관단 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공군 조직의 중추인 부서관단의 리더로서, 맡은 바 역할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공군정책에 대한 부서관단의 공감대를 높이고,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적극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AF**

December 2017 www.airforce.mil.kr



교육사, 시설종합훈련장 개관식

교육사령부는 11월 10일(금) 현장중심 교육훈련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종합훈련장을 준공하고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3훈비, 전투태세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1월 13일(월)~16일(목)까지 전투태세 훈련(ORE)을 실시하였다.



5비, 화재진압 및 대량환자 항공의무수송 훈련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1월 2일(목)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화재진압 및 대량환자 항공의무수송 훈련을 실시하였다.



8전비, 후반기 비행단 체육대회

제8전투비행단은 11월 3일(금) 후반기 비행단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10전비, 지진대피훈련

제10전투비행단은 11월 1일(수)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11전비, F-16 Hydrazine 제독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11월 14일(화) F-16 Hydrazine 제독 훈련을 실시하였다.



15비, 성남시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11월 13일(월) 2017 성남시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 사업에 참가하였다.



16전비, 항공과학고 실무부대 실습체험

제16전투비행단은 11월 13일(월)~15일(수) 비행단에 방문한 항공과학고 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무부대 실습 체험을 실시하였다.



17전비, 병사기초군기 유지 실천 캠페인

제17전투비행단은 11월 6일(월)~10일(금) 병사자율 위원회 주관으로 병사기초군기 유지 실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18전비, 비상할주로 이·착륙 훈련

제18전투비행단은 11월 9일(목) 비상할주로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비상할주로 이·착륙 및 재출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19전비, 중원대 항공정비학과 비행단 방문체험

제19전투비행단은 11월 13일(월) 중원대학교 항공정비학과 학생들의 비행단 방문체험행사를 실시하였다.



20전비,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훈련

제20전투비행단은 11월 2일(목)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AF**



월간「공군」이 선정한 2017년 공군 10대 뉴스

2017년 새해인사를 한 게 어제 같은데 어느새 송년회 약속이 하나둘씩 잡히는 연말이 되었다. 2017년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해도 공군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연이어 지속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는 불철주야 계속되었으며, 서울 ADEX 2017과 스페이스 챌린지 2017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 또한 마련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월간「공군」이 선정한 2017 공군 10대 뉴스를 살펴보자!



1. 대한민국 공군 최강전력 총출동! 'Soaring Eagle'

매년 공군의 최강전력이 총출동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대규모 종합전투훈련인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 올해에는 총 15개 부대와 50여 대의 항공전력, 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해 공군의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와 즉각적인 응징능력을 보여주었다.



2.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를 열광시키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로 고난도 에어쇼를 선보이는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2017년 3월 말레이시아 LIMA '17에 참가해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에어쇼를 위해 블랙이글스 조종사 10명을 포함한 총 150여 명이 왕복 11,600km의 거리를 비행하며 전개했다.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블랙이글스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산 항공기 T-50B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3. 역대 최대 규모 한미 공군 연합 훈련, 'Max Thunder'

한미공군의 대규모 항공전역 연합훈련인 맥스선더(Max-Thunder) 훈련.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이 훈련은, 양국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적 군사도발 및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실시된 맥스선더 훈련에서는 120여 대의 항공기와 1,200여 명의 장병 등 역대 최대 규모가 참가했으며, 우리 공군과 주한 미 공군 전력뿐만 아니라 주일 미 공군까지 참여하여 유사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었다.



4. 온가족이 즐기는 서울 ADEX 2017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서울 ADEX 2017. 2년에 한 번 개최되며 항공우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행사가 지난 10월 공군 서울기지에 실시되었다. 미 F-22 랩터의 에어쇼를 비롯해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특수기동이 펼쳐졌으며,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플래시몹·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국제방위산업전시회로서의 면모를 널리 알렸다.





5. B-1B · F-35B가 떴다! 한미 연합 항공차단작전 훈련

8월 31일,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한미 공군이 연합 항공차단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美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투입되었으며, 美공군의 B-1B 폭격기 2대, 우리 공군의 F-15K 4대가 편대를 이루어 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한반도에 전개한 한미 연합공군은 적의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 공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양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6. 다시 알래스카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우리 공군 KF-16 전투기 6대와 C-130 수송기 1대가 참여했다.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출발해 13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약 7,700km를 10시간 동안 비행해 알래스카에 도착했다. 2주 간 다국적 연합공군과 공중중합 전투기동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전투수행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7. 강력하고 목직한 한 방, 타우러스(TAURUS) 최초 실사격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어 한반도 안보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한민국 공군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뒤 목적지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함으로써,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과 적의 핵심시설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8.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7

국내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항공과학 축제로 자리매김한 '스페이스 챌린지'가 올해로 제39회를 맞이하여 2017년 9월,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예선대회에는 총 7천여 명의 참가선수와 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본선대회에서는 항공과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정밀조종', '드론 레이싱' 종목이 정식 운영했다.

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은 1·1·1 독서운동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10월 25일(수) '2017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병영도서관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2017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전국 15,07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7전비는 전국 1,888개 부대 병영도서관과 경쟁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 탄생

공군사관학교에 여생도가 입학한 지 21년(1997년), 여성 전투조종사가 배출된 지 16년(2002년),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탄생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박지원(공사 49기)·박지연(공사 49기)·하정미(공사 50기) 소령의 활약은 일찍이 월간「공군」2월호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AF**



공군 IN

기획특집 3

일격필추!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글
중위 이준건

사진
상사 편보현 · 전용태

일격필추!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

영화 <어벤져스>의 멤버로 친숙해진 토르는 사실 북유럽신화의 신(神)이다. 토르 이전에 북유럽신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은 오딘인데, 그에게는 어떤 표적이든 던지면 반드시 맞는 무적의 창 '궁니르'를 무기로 갖고 있다. '궁니르'를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 바로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의 현장이지 않았을까? 마치 궁니르처럼, 표적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 명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들. 방공유도미사일 '천궁'의 등장으로 더 뜨거웠던 사격대회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11월 2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이하 유도탄사)에서는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를 실시했다. 매년 실시되는 이 대회는 방공유도탄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완벽한 방공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의 주인공들은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천궁과 패트리엇, 단거리 유도무기인 미스트랄과 발칸. 특히 천궁은 이날 최초로 실사격을 진행했다. 천궁은 발사대를 움직이지 않고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적과 교전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하에 국내 개발된 최신 방공유도무기체계이다.

천궁은 발사 직후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약 5,500km/h)의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했다! 한편, 2km 고도에서 접근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를 향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날아가 격추시켰다. 또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는 미스트랄과 발칸의 강력한 '한 방'이 날아갔다.

어디서 어떤 적이 오든, 공군의 방공유도무기들은 오딘의 '궁니르'와 같이 정확하고도 강력하게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적들을 요격할 것이다.



패트리엇 발사



미스트랄 발사



천궁 발사





공군 IN

기획특집 4

공감 사진전(Feat. 라미스튜디오)

글
중위 이준건

사진
라미현(Rami Hyun)
상사 한범희 · 전용태



공감 사진전(Feat. 라미스튜디오)

라미 현(Rami Hyun) 사진작가가 공군과 함께 작업한 사진을 소개한다. 라미 작가는 군인 전문 사진작가로, 2016년 국군의 날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사진전 '나는 군인이다'를 열었다. 대한민국 공군과 라미작가 협업의 결과물, 그 멋진 사진들을 함께 감상해보자!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정에 팀워크! 조종사와 정비사



강하고 믿음직한 정예헌병! 공군 특수임무요원



일격필추의 각오! 패트리엇 포대 장병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언제 어디든 간다! 항공구조사



공군 IN

하늘을 향한 시선
: 내면 속의 자아를 찾자

글·사진
이휘리(공감기자)



파란 바다 하늘 물결 아래 모두 모여 소리 질러~

나의 공군 유산답사기

소풍가는 전날처럼 설렘. 취재 날이면 혼자 움직였던 때와 달리 단체 견학이었다. 그것도 공군을 사랑하는 단체와의 견학이라니.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기대 반, 낯선 분들과 1박 2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두려움 반이었다. 밤새 말뚱말뚱한 눈으로 방문하는 비행단의 정보와 역사, 심지어 서산의 맛집 리스트까지 검색하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부랴부랴 서울로 향했다. 집결지인 서울 교대역에 도착하니 역시나 어색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공군'이라는 공통점 아래 다양하게 모인 남녀 노소가 자리에 앉아가셔서 서늘하게 도착한 나를 매섭게 응시하셨다. 곧바로 버스는 출발했고 2시간 정도를 달려 우리의 첫 목적지인 제8522부대에 도착했다.

제8522부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과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담기는 산정상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8522부대가 있었다. 간단한 동영상과 함께 부대 소개를 들었다. 말로만 듣던 호크 미사일을 만나게 되었다. 하늘을 향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력적이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다.



늘 그랬던 것인가? 호크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눈매가 매서워보였다. 간단한 호크 작동법을 보이는 모든 장병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절도 있는 수신호, 깔끔한 구호 속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훈련이 된 부대라는 사실이 계속 느껴졌다.

또한, 무게중심이 잘 맞아 이동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정거리는 얼마인지 등 공군 예비역 분들의 전문가다운 질문들도 꽤 많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심오한 질문 하나. "저 앞 대천 앞바다에선 고래도 잡힐까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모두 호쾌하게 웃으며 첫 번째 견학지가 마무리되었다. 아마도 공군의 매력은 이런 진지함 속에서도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해미읍성

다 같이 점심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서산 9경 중 하나인 해미읍성으로 향했다. 바다가 아름답다는 의미의 해미(海美)는 해안지방에 출몰하는 왜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되어, 1421년(세종 3년) 평시에는 행정중심지이며 비상시에는 방어기지가 되는 읍성을 지



었다. 그 당시 군 최고 지휘기관인 총참모장이 위치하게 되었는데 충무공 이순신도 군관으로 근무한 역사적인 곳이다. 지금은 내부가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 진남문, 민속가옥, 동헌, 청허정 등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제20전투비행단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공군에서 가장 큰 비행장과 K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제20전투비행단이었다. 친절함 미소와 따뜻한 환영인사로 들어선 곳에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시설들이 우리를 반겼다. 전투비행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니 역사나 자칭 전문가 분들의 매서운 질문공세가 시작되었다. 애정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법. 공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때로는 따끔한 제언을 때로는 뜨거운 찬사를 만들어냈다. 쏟아지는 모든 질문에 부드러우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시는 단장님의 카리스마에서 또 한 번 신뢰감을 얻고 왔으니 오늘로 견학 참석자들의 공군사랑 지수는 +1 추가되었다!

다양한 무기체계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무장전시장을 거쳐, 전투기가 정비되는 현장과 땀 흘려 일하는 부사관·정비병들의 노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무사고를 향한 '100% 완벽정비 & 0% 결함'을 위해 노력하는 정비담당자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쳐주고 싶다.

특별하게도 전투조종사들이 근무하는 전투비행대대에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제123전투비행대대에서는 시뮬레이터 조종모습, 상황 안내, 장비 등을 보았고 능률한 위용의 KF-16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비행 한 번을 위해 브리핑을 해야 하고, 정비를 해야 하고, 조종사들이 심적 준비를 해야 되며, 비행 후에는 또다시 비행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조종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무엇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행을 방금 마치고 왔나 보다.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조종사들의 얼굴이 멋지게 보이고, 잘생긴 배우보다 두 배는 더 잘생겨 보였다. 이어서 현장을 둘러보다보니 여기저기서 무용담이 하나씩 들려왔다. 올해 2월 제20전투비행단을 갖 전역한 참가자 분부터, 조종석을 누구보다 실감나게 설명해주신 항공소년단 사무총장님, 30년 전 근무했지만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예비역 분들의 현역 시절 미담 등. 이야기보따리를 골라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보통은 군 시절이 꿈에 나와 놀란다던데 몇십 년이 지나도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여 고향 방문한 기분으로 웃으시는 모습들을 보니 역시 공군은 뭔가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날의 견학 현장은 '안보견학'이라는 다소 딱딱한 명칭으로 시작됐지만, 공군사랑이라는 공통점 아래 하나로 모였다. 공군에 몸담았던 사람들부터 현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군이 되고 싶은 학생들까지. 공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한 것이다. 사는 곳, 직업, 속한 단체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이것만은 확실해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볼 수 있는 파란하늘이 좋다. 나는 자랑스러운 공군을 응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군을 사랑한다. **AF**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글·사진
진재훈
(공감기자)



한겨울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겨울호수



각자의 자리에서 힘찬 카운트다운을 외치며 맞이한 2017년도 어느새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해 그렇듯이 올해의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온 것 같네요. 겨울은 연말(年末)이면서 또한 연초(年初)가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더욱 오묘하고 특별한 감성을 낳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나들이로 공군이 선정한 겨울호수 여행지들을 소개합니다.

고요하고 한적한 겨울 호수의 정취 ‘포천 산정호수’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정호수는 흔히 생각하는 고요하고 한적한 겨울호수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꼽히며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포천은 겨울이 무척 매섭기 때문에 산정호수는 한번 얼면 잘 녹지 않는 얼음호수가 되고, 눈도 한번 쌓이면 그 해 겨울을 거의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산정호수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꿈꿨던 호수를 눈 덮인 평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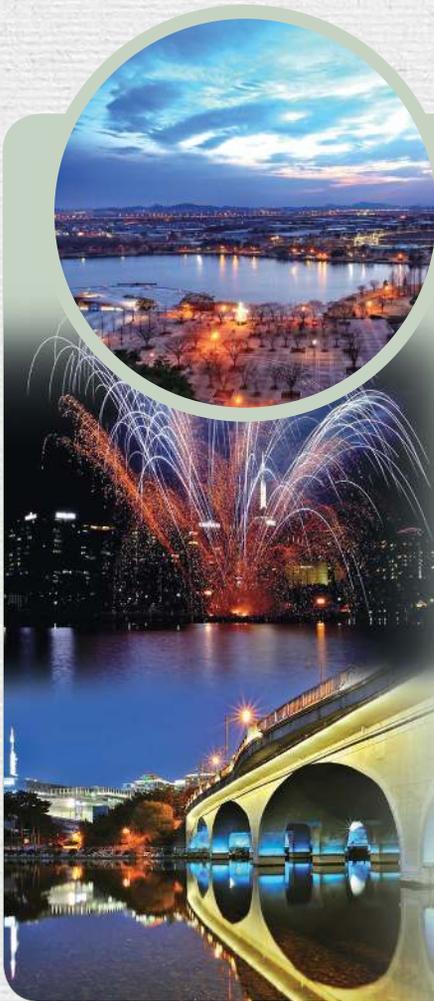


문의 : 산정호수 관리사무소(031-540-6350)

착각해 알아보지 못하고 헤매기도 한다고 할 정도.

산정호수의 이런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썰매나 팽이치기 등 겨울놀이를 위해서나 얼음낚시를 즐기는 어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명소가 됩니다. 한번 얼어버린 산정호수의 얼음두께는 20cm가 넘기 때문에 호수 한가운데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오리모양으로 된 호수썰매 등의 놀이기구도 운영됩니다. 오리 한 마리당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것들이 여러 마리로 연결되어 호수를 관람할 수 있는데, 요금은 1인당 5천 원이며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대적인 빛 그리고 자연의 정취 '일산 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있는 큰 호수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을 두르는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운동기구,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호수공원은 매년 봄에 개최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개최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통정원, 인공폭포, 조각공원, 약초섬, 장미원 등의 조경시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산의 중심상업지역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으로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덕분에 일산호수공원은 현대적인 문명의 화려함과 고요한 자연적인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가족이나 연인들의 신비람 나는 나들이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산호수공원에서는 매 겨울마다 '고양호수꽃빛축제'가 열립니다. 고양호수꽃빛축제는 꽃과 빛, 문화의 융복합 축제라는 컨셉 하에 멀티미디어 아트쇼와 다채로운 빛 LED가 전시되어 겨울과 빛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리로, 겨울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공연 등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양호수꽃빛축제 : 2017. 12. 15.(금) ~ 2018. 2. 18.(일),
평일 17~22시 · 공휴일 17~23시(무료관람)

부대행사 : 점등식(12/16), 불꽃쇼(12/24, 12/31,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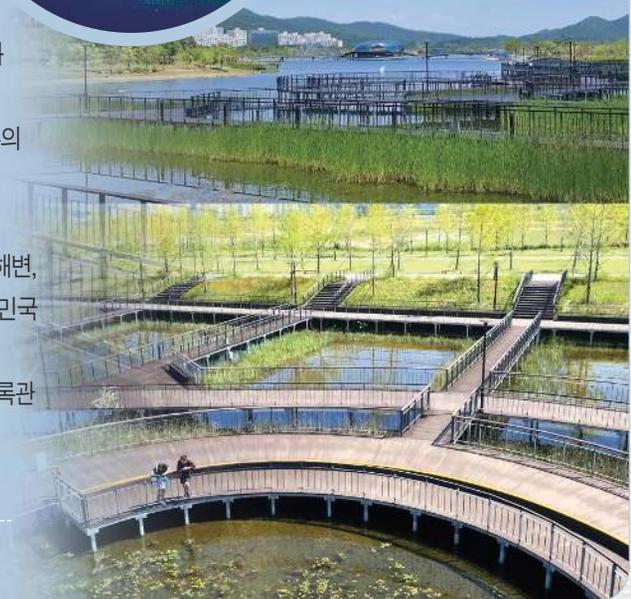
문의 : 일산호수공원 관리사무소(031-906-4557)

한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 '세종 호수공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호수공원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입니다. 세종호수공원은 특히 야경이 매혹적인 것으로 유명하여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다는 세종시의 모토답게 국립수목원 중앙녹지공간 등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자연광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3년 전면개장되어 시설과 관리가 매우 깔끔한 편으로, 금강의 본류와 지류의 물을 끌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종호수공원에는 호수전망대를 시작으로 물꽃섬, 습지섬, 축제섬, 무대섬, 물놀이섬 등의 인공섬이 있고, 그 외에도 중심수변광장, 은빛해변, 수변전통공원, 바람의 언덕, 나들 숲, 야생초화원, 감각정원 등등 대한민국 최대의 인공호수공원답게 둘러보기만 해도 숨이 찰 정도로 수많은 볼거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이 호수공원에 인접해 있어서 산책이나 조깅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AF**

문의 : 세종호수공원 관리사무소(044-301-3635)





공군 IN

공군을 느끼고, 공군을 말하다

글·사진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양낙규 기자의 공군 취재기 10편

그 어디든 보급이 필요한 곳이라면 '공정화물'의 '장중대'

전쟁터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보급이 끊긴다면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도 적에게는 '독안에 든 쥐'다. 하지만 이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된 아군에게도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대가 전군 유일하게 공군에만 있다. 어느 곳이든 장갑차, 지휘관 차량, 식량, 의료품들을 보급한다. 택배회사보다 정확하고 퀵서비스보다 빠르다. 바로 공정화물의장중대(이하 의장중대)이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제259전술공수지원대대를 찾았다.



1) 공중에서 보급품을 투하하기 이전에, 보급품을 '포장'하고 '적재'하는 임무를 맡는다.(편집자주)

의장중대 작업장에 들어가니 580m² 크기의 작업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의장중대 7명의 장병들은 보급품 포장에 한창이었다. 보급품은 무게에 따라 크게 1,143kg 이상은 중장비(HE: Heavy Equipment), 226~997kg는 용기화물(CDS: Container Delivery System), 226kg 이하의 용기화물(BDL: Bundle)로 구분한다. 무게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장착하는 낙하산 종류도 다르다. HE의 낙하산은 G-11B, CDS의 낙하산은 G-12, BDL의 낙하산은 G-13을 장착한다. 낙하산 G-11B은 지름만 30m에 이른다. 보급품의 무게중심에 따라 낙하산의 장착위치도 달라진다.

기자도 이들이 작업 중인 차량(Radio Jeep) 포장에 동참했다. 포장 방법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밀받침 배치 ② 충격흡수를 위한 완충제 설치 ③ 무게중심을 고려한 보급품 배치 ④ 보급품 고정 ⑤ 낙하산 설치 ⑥ 착지 때 화물이 뒤집힘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 설치. 차량바닥에 알루미늄 판을 깔고 충격흡수를 위해 5cm두께의 골판지를 차량축 밑바닥에 깔았다. 차량과 밀받침을 끈으로 고정하기 위해 차량 아래에 몸을 밀어 넣었다. 밀받침과 차량 사이의 공간은

30cm도 되지 않았다. 들어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았다. 끈 하나를 매기 위해 5분간 애를 쓰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의장중대장은 “중장비에 속하는 차량 하나를 포장하는데 100여 개의 매듭과 140여 가지의 고리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투하도중 낙하산, 밀받침, 보급품이 각각 분리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날 차량 1대를 포장하는 데 교관 4명이 작업해 5시간이 걸렸다. 작업을 끝낸 시간은 오후 5시 반. 간단해 보이던 차량 포장에 하루가 지나갔다.



적재를 마친 후 전술훈련이 예정된 수송기 화물칸에 적재사들과 동승했다. 이날 투하 지역은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 위치한 낙동강. 10분 정도 지나니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폭 500m, 길이 1km의 강변에서 공중통제사가 표시한 지점에 보급품을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 수송기는 적의 대공포를 피하는 듯 전술비행을 시도했다. 수송기가 60도가량 몸을 기울여 비행하는가 하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피해 비행했다. 몸을 가누는 것은 불가능했고 어지럼증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날 비행시간은 총 1시간 40분. 이동거리만 514km다. 울렁증과 흘린 땀에, 식은땀까지 더했다.

다음날 아침 9시. 의장작업장에서 500m 떨어진 활주로에 C-130 수송기가 서 있었다. C-130의 최대투하량은 1.4톤이다. 2,948kg의 차량 4대를 거뜰히 투하시킬 수 있는 셈이다. 적재사들이 포장을 마친 보급품을 수송기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가벼운 순서부터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벼운 보급품을 마지막에 실을 경우, 낙하 도중 뒤따라 낙하하는 무거운 보급품이 먼저 떨어져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송기 조종사들은 미리 침투한 공중통제사들이 불러준 풍향, 온도 등을 공중투하 계산프로그램(CARP)에 적용했다. 최적의 지점에 도착하자 수송기는 급하강하더니 지상 100m 지점에서 수송기 뒷문을 열었다. 안전보호조끼를 입고 보급품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보급품은 수송기 밖으로 빨려나갔다. 떨어진 지점은 공중통제사가 피워놓은 연막탄의 10m지점. 정확했다. 지난 2009년, 세계 공군들이 보급품투하 실력을 겨루는 ‘국제 로데오대회’에서 최우수외국팀상을 받은 실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어렵게 땅을 밟았지만 울렁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군 장병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어디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진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우리 전우들을 위해... **AF**





공군 IN
조인, 조인!

글
이도아
(공감기자)



사진
하사 김재겸
(홍보과)

취재지원
중위 이준건,
대위(진) 박지완



본격, 공군인 자긍심 충전 프로젝트!
빛나는 공군 예비역 다 모여라!

조인, 조인!

鳥人

제19화

당신의 삶에 건네는 쪽지 하나

‘박이철’ 베스트셀러 작가 (학사96기)

만나고 싶었습니다 「청소부가 된 어린왕자」 박이철 작가입니다.

✈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박이철입니다.

부제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니, 전업 작가처럼 보이지요? 사실 전 사업가예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 다방면에서 일을 진행 중에 있기에 하나만 콧 집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대표적으로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마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저는 '행복의 비밀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행복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책을 쓰게 되었어요. 베스트셀러라는 결과를 얻었으니 제 메시지를 전달 받은 분들이 그만큼 많이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지요? (웃음)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부가 된 어린왕자> 1편과 2편을 시리즈로 출간한, 작가 박이철입니다.

✈ 저는 공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행운'

공군 학사장교(96기) 출신으로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지원 계기는 거창하지 않아요. 공군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련되고 자율적이며 스마트한. 그런 분위기에서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공군의 문을 두드렸는데 운이 좋게 합격했고, 입대를 하게 되었죠. 보급 특기를 받았는데, 특이하게도 급양 중대장과 지원중대장으로 5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복무 내내 밥 지은 기억이 대단히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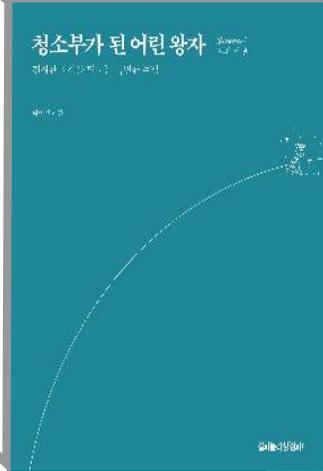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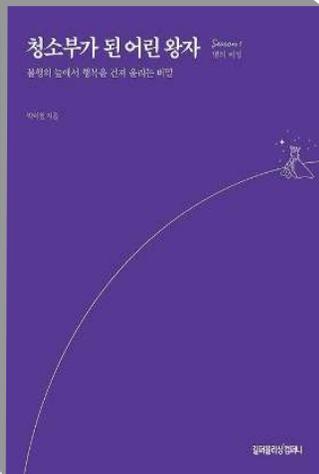
장교가 왜 밥을 지었냐고요? 제가 중대장으로 부임한지 2주 남짓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지휘관님께서 순시를 하시다가 식당 근무 병사 하나가 조리실에서 취사 버튼을 누르는 장면을 포착하시게 됩니다. 물론 취사 버튼 정도야 혼자서도 누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랑 병사 혼자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에 지휘관은 노하셨고, 결국 당일 아침 저희 담당 장교들 모두를 호출하셨죠. 한바탕 폭풍이 불었고, 그 결과 저는 소위였음에도 지휘관께 직접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여 밥을 준비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생활을 인정받아 모범장병으로 선발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문화탐방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살린 사건이었죠!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건, 당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위가 문화탐방을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문에 대해 전대장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나는 박이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요. 지금 떠올려도 온몸에 전율이 오르죠. 이런 군 생활, 이런 지휘관을 공군 아니면 어디서 경험해봤겠습니까. 또 그때 알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온 공군 인맥들도 있으니, 정말 여러모로 공군은 제게 있어 행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공군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겠어요?

※ 12월 '조인, 조인!'은 1인칭 시점을 통해 인터뷰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길퍼블리싱컴퍼니, 청소부가 된 어린왕자 시즌 1 & 2(2017)

선택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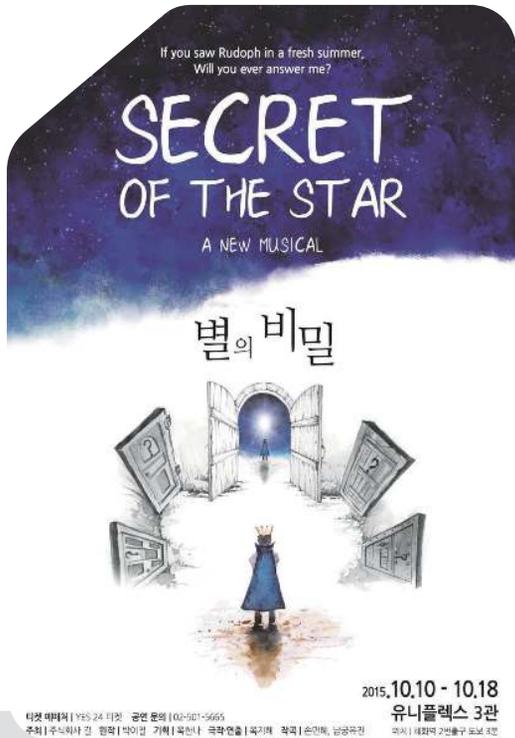
하지만 여러분! 어찌 군 생활이 행운이고 행복이긴 했겠어요. 누구든지 삶의 고충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저도,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단순해요. 내가 몸담았던 곳,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곳이 곧 긍정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호랑이를 잘 길들이십시오.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해도 다시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을 쓰러지게 할 만큼의 존재가 있는가 따져보세요. 제가 단언하는 이유는, 세상엔 여러분 스스로만큼 소중한 값지고 행복해야 할 존재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마음에 담아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청소부가 된 어린왕자>를 내고 군부대만 약 100곳을 돌며 '힐링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했어요. 많은 분들께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책만으로는 아무래도 전달에 한계가 있다 보니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제 메시지를 들려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물론 강연의 주제는 제 책을 바탕으로 한 '행복 찾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장병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위축되었고, 불행해했고, 힘들어했죠. '일병, 이병, 상병, 병장' 혹은 그 이상에 자리하신 분들이요. 이름만큼 가볍지 않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고,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신데 왜 비관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이 글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꺼이 당신 스스로를 조련하십시오."





뮤지컬로도 제작된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2015)

 **삶도, 당신도, 오롯이 당신의 것이길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한 독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작가님 책을 30번은 읽었어요.” 저는 그에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읽었는데, 이제 보니 이 책의 주인은 선생님이지요.” 이 장면은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의 프롤로그에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충실하십시오. 같은 책 30번 읽길 마다 않는 세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세요. ‘무엇이 더 좋으냐?’ 끊임없이 물으시고 끊임없이 답하십시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행복은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스스로 조련해 보십시오. 질문하면 할수록, 제가 그랬듯, 여러분 또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의 삶도 아닌, 당신의 삶에 온기 어린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017년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작가 박이철로부터. **AF**





공군 IN
신고합니다!

기획
하사 김재겸
(홍보과)



사진
상사 고태호
(18비 정훈실)



양준영
병 118기
항공장구정비병
2017.7.17.
(입대곡: 레드벨벳-빨간 맛)

장구정비병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원래 특기는 기계정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투기를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계정비를 지원했었는데, 나중에는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조종사들의 장구를 정비하는 멋진 특기가 있다는 이야길 듣고, 홀린 듯이 항공장구정비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구정비병으로서 업무 숙달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지원해서 온 만큼, 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으며 업무 숙달에 어렵거나 힘든 점은 아직 없습니다. 선임 분들과 간부님들이 업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는 덕분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목표는?

항공장구정비병이 된 이상, 안전하고 문제없이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고 싶습니다. 또, 김태순 병장님처럼 후임들에게 존경 받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고, 될 수 있다면 전역 전에 여자 친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역자에게 한마디

떠나신다는 게 너무나 섭섭합니다.(노래방에 같이 가면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군 생활 2년을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제가 즐겁고 편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하는 노하우와 필요한 업무지식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역하는 날까지 사고 치지 않고 말 잘 듣겠습니다! 필승!



신.고.함.니.라

김태순

병 960기

항공장구정비병

2016.1.11.

(입대곡: 여자인자-오늘부터 우리는)

장구정비병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항공장구반은 조종사의 안전 비행 및 생환을 위한 헬멧&마스크(Helmet&Mask)와 G-수트(G-Suit) 등의 항공 장구들을 관리·점검하며, 비행 임무 시 조종사들에게 장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항공기의 연료감소 및 안전한 착륙을 위한 감속용 낙하산 작업 또한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군 생활 동안 자격증 하나쯤은 취득 해 보자는 생각으로 휴식시간에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일과 후에는 생활관에서 취득준비에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얻었고, 현재는 합격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겨울에 제설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은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렸는데 거의 무릎까지 쌓인 눈을 보면서 '와 이걸 언제 다 치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료들과 일과시간 내내 다 치우고 밤에 기절하듯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후임자에게 한마디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즐거웠고 해준 게 많이 없어서 아쉽구나. 더 오랜 시간 같이 하고 싶지만, 나는 전역을 해야 돼.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동안 힘든 일은 많겠지만, 너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금의 밝고 건강한 모습 변치 않고 전역하길 바랄게.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렴! AF



고혈압 관리법

요즘 대사증후군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대사증후군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의 전 단계로서, 만성적인 대사 장애가 한 사람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증상 가운데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자.

고혈압이란?

혈압은 혈액이 흐를 때 혈관 벽에 가하는 힘을 말한다. 수축기의 최고 혈압과 확장기의 최저 혈압으로 나뉘어 재는데,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이 이완화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다. 고혈압은 신장, 심장 및 혈관을 포함하는 순환기계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질환으로서 정상혈압, 경계고혈압, 고혈압으로 분류해 왔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기준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나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을 말한다. 최근 11월 13일 미국 심장협회(AHA) 및 미국 심장병학회(ACC)는 10년 만에 새로운 포괄적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이사항은 고혈압 치료에 착수하는 기준선을 현행 140 mmHg/90mmHg에서 130mmHg/80mmHg로 낮추어 개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수축기 혈압 120~139mmHg 사이 및 이완기 혈압 80~89mmHg 사이를 지칭해 왔던 '경계성 혈압(prehypertension)'을 삭제했다.



추천 생활요법

1. 과체중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며 체중을 줄이기를 권장한다.
2. 식염과 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나트륨은 수분을 체내에 저류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3.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여 섬유소를 충분히 보충한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코엔자임Q10, 비타민C, 플라벤, 나토키나제 등을 섭취한다.
4.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한다. 다만 동물성 지방과 붉은류의 단백질은 피하고, 흰살 생선이나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한다.
5. 모든 술, 카페인, 담배를 피한다.

분 류	혈 압 기 준
정상혈압	120/80mmHg 이하
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30~139mmHg 또는 이완기 혈압 80~89mmHg 사이
2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최소 14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최소 90mmHg
고혈압 위기	최고 180mmHg 이상 또는 최저 120mmHg 이상

[미국 심장협회(AHA) 및 미국 심장병학회(ACC)가 발표한 혈압 기준]

고혈압의 원인은?

고혈압의 원인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이 있다. 고혈압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고혈압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로서 유전적인, 체질적인 영향이 중요하다. 혈압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이차성 고혈압은 내분비적인 호르몬의 이상과 과다분비로 인하여 나타난다.

고혈압의 증상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두통, 현기증, 시력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혈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각증상 자체가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는 심장에 생기는 심부전증과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장애로 인한 뇌졸중, 신장에 생기는 만성신부전증 등이 있으며, 고혈압환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합병증의 발생률은 더욱 높아진다. **AF**



Adieu, 2017!



PC게임 <월드 오브 워플레인>의
센양 JL-1A-37

| Air-power Report |

도약을 꿈꾸는 중등훈련기 끝판왕

: Pilatus PC-21

현대의 전투기들은 다양한 고급 에비오닉스를 장착하기 때문에, 전투조종사들은 기체에 탑재된 다종다양한 항전 장비들을 적절하고 능숙하게 사용해 임무를 유리하게 끌고 나갈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종사 훈련 또한 그러한 기재 취급과 훈련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어야 한다.

초음속 전투기가 막 탄생했을 때는 조종사들이 초음속 비행에 익숙해지는 것이 시급했으나, 현재는 음속과 초음속 비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미공군이 먼저 연 초음속 전투기 시대의 초음속 비행 시간은 현재 일상 훈련에서 반복되는 비행시간에 비교하면 턱없이 짧다. 따라서 이제는 훈련기에도 초음속 비행 가능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선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T-50 골든 이글이 강력한 라이벌들과 경쟁하며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훈련기의 명가, 필라투스(Pilatus)

군대라고 경제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군대는 예산과 가성비가 성능 다음으로 중요시된다. 초음속 비행을 하려면 비싸고 강력한 엔진이 있어야 하며 기체 구조 또한 아음속기와는 다른, 복잡하고 제작비가 많이 소비되는 설계와 고가의 재료가 필요하다. 훈련 시간당 연료 소모량 역시 몇 배나 더 늘어나 운영비는 더욱 치솟게 된다. 따라서 순수하게 훈련기 용도로만 쓰고자 제트기를 선택 구매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

자타가 공인하는 훈련기의 명가로 일컬어지는 스위스의 필라투스(Pilatus Aircraft)사(社)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폭넓은 시장 조사와 연구를 거듭했다. 그 결과 비행 훈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터보프롭 훈련기가 최선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초중등 훈련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필라투스 PC-7이었다.



▲ 남아공 공군의 필라투스 PC-7



▲ 아일랜드 항공대 소속의 필라투스 PC-9

필라투스 사는 PC-7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간단하고 저렴한 기체는 그 성능 기준이 낮아 제작이 손쉬운 기종이란 것이 문제였다. 그 후 여러 국가에서 PC-7을 면허 생산하거나 그 컨셉을 받아들여 참으로 다양한 터보프롭 훈련기가 등장했다.

이제 선도하는 입장에서 쫓기는 입장이 된 필라투스 사는 1997년 11월에 차세대 터보프롭 훈련기의 개선점을 시험하기 위하여 PC-7 Mk.II라는 개량형을 만들었다. 테스트해본 결과, 필라투스는 1998년 11월에 새로운 훈련 시스템의 개발에 자금을 출자하기로 결정하고 PC-21의 신규 개발을 1999년 1월부터 시작했다. 개발의 초점은 터보프롭 엔진의 훈련기를 능가하는 우수한 '공기 역학적인 특성', 더 강력하면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통합 훈련 체계', 그리고 터보프롭 훈련기를 훨씬 뛰어넘는 '수명 주기 비용' 같은 요소들이었다.

새로워진 디자인

PC-21은 PC-7이나 PC-9과 비슷한 컨셉으로 탄생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이다. 엔진은 PC-9의 PT6A-62(857kW)보다 높은 출력의 PT6A-68B(1,192kW)를 장비했고, 프로펠러는 기존의 4엽이 아니라 가속성이 좋고 고기동 비행에 유리한 5엽 블레이드를 사용했다. 동체 역시 기존의 필라투스제 훈련기보다 더욱 매끈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복합 재료의 사용 비중도 더욱 늘어났다.

탠덤식으로 앉는 조종석의 방풍창은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아주는 충돌 테스트 또한 마쳤다. 콕핏에 앉으면 우선 큼직한 광각 HUD와 3개의 대형 액정디스플레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며, 대부분의 정보는 여기에 시현된다. 조종간은 F-16과 마찬가지로 왼손으로는 스로틀, 오른손으로 조종간을 잡고 각종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HOTAS(Hands On Throttle and Stick) 기능을 구현했다. PC-21의 디스플레이와 각종 스위치의 기능은 스위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과 동일하게 배치되었다. 디스플레이는 나이트 비전 고글에 대응되는 저광량 모드도 지원해주는 덕분에 야시경을 끼고 비행 훈련을 할 수도 있다.



▲ PC-21의 고도로 정교한 콕핏



배치 상황

스위스공군은 1차 물량으로 6대의 PC-21을 구매했는데, 수량이 이처럼 적은 것이 이미 PC-9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21일에 싱가포르 공군을 위한 PC-21이 납품테스트를 완료하고 같은 해 7월 13일부터 싱가포르 공군에 배치되었다. 부자 공군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2009년에 25대를 주문했고, 첫 번째 기체는 2010년 11월 22일에 처음 비행했다. 필라투스 사는 그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수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0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판촉에 힘을 쏟고 있다. **AF**



공군 재무관리본부

2018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덧 2017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정경제의 흐름을 점검하고 지출과 소득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연초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년 바뀌는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필수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준비

출생·입양 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존에는 아이 출생 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대상 및 대상주택 확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비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어 고시원비를 월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공제한도 범위(학생1인당 연간300만원) 내에서 공제율 15%로 적용되어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제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체로 인한 추가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의 교육비를 공제 받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원리금 300만원 상환 시 45만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 확대

20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
2. 교육비 :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3.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
4.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5.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비용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11월 7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지난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 정보의 간편한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홈텍스 : www.hometa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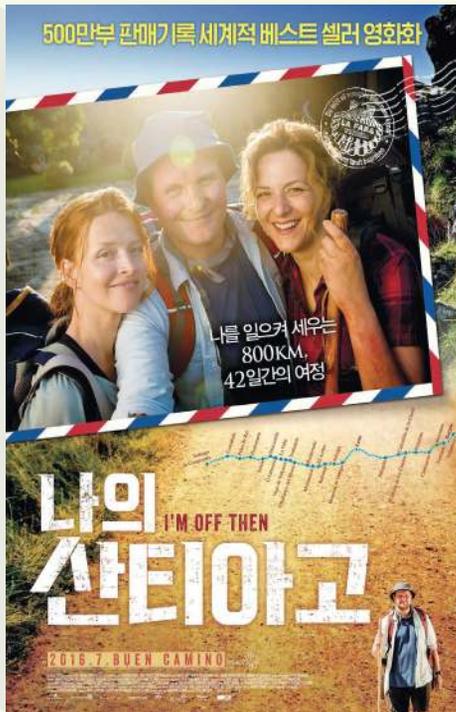


2017년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군가족 여러분과 주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F**



Hollywood English

나의 산티아고



‘나를 만나는 곳’.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인가요?

‘나를 만드는 곳’. 그곳은 또 어디일까요?

‘나를 만나는 곳’이란 ‘나는 무엇인가(What am I?)’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아 발견(self-discovery)의 깨달음을 얻는 공간일 것입니다. 한편 ‘나를 만드는 곳’이란 ‘나’를 더 성숙한 인격체와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기 위한 배움과 자기 계발의 공간일 것입니다. 이번 송년호에서는 이들 두 개의 공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1817-1862)에게 두 공간은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 주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숫가 숲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나온 뒤 잠깐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 문명 세계와 등지고 숲속에 들어가 작은 오두막집을 직접 짓고 독거(獨居) 생활을 합니다. 정확하게 2년 2개월 2일간, 그는 숲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명저 ‘월든’에 담았습니다.

소로가 남긴 주옥같은 글들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명구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숲을 산책하고 왔더니 내 키가 나무보다 커졌다.(I took a walk in the woods and came out taller than the trees).’

‘나무보다 큰 키가 됐다’는 표현이 은유하는 것은 그가 존재의 이유나 삶의 목적, 그리고 행복의 의미 등을 예전보다 큰 그림(big picture)으로 성찰하고 통찰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그런 숲들 가운데 하나가 '별다방'입니다. 이곳은 저에게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동시에 사색하고 상상하는 공간입니다. 영화를 번역하고,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고, 시를 짓고, 책과 종이신문을 읽는 문화 공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칼럼을 쓰는 지금도 저는 '나무보다 큰 키로' 저를 자라게 하는 '별다방 숲'에 와있습니다.



이번엔 어느 유명 독일인 코미디언의 '숲'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페 케르켈링. 여행 산문집인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를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을 읽고서, 그리고 그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든 영화 '나의 산티아고 길(I'm Off Then)'을 보고선 '산티아고 순례길'이야말로 그가 가진 여러 '숲' 가운데 하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방송계 스타 하페는 쓰러집니다. 아니, 무너졌다고 표현해야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원인은 과로와 그로 인해 생긴 과도한 스트레스. 의사의 권유를 따라 무한정 쉬어보기로 한 그를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안내서입니다. 모든 이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서 하페는 791km를 홀로 걸기로 결심합니다.

하루 20-30km를 걸어야 하는 만만찮은 여정에 오르는 하페. 그의 여정이 순탄할 턱이 없습니다.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발이 무시로 부르뜩니다.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한시적이나마 문명과 이별해보고 싶다면 떠나놓고선, 특히면 차를 얻어 타기도 하는군요. 곧 죽어도 잠은 호텔에서에서만 자야 하고요.



홀로 걷던 그는 밀려오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무리 속에서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면서, 그때 한 여성이 충고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산티아고 길'을 혼자 걸어야만 해요. (If you want to reach the goal, you have to walk the Way alone)."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분명 그렇게 '숲'을 혼자서 거닐며 더 크게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페도 대선배의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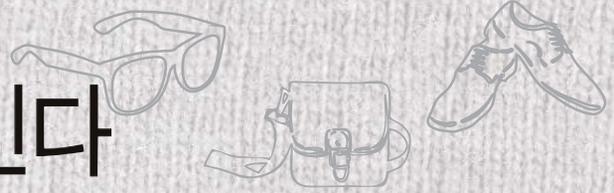
하페의 도전은 성공할까요? 족히 85%는 중도에 포기한다는 그 여정에서 그는 마침내 15% 안에 들고 갑니다. 궁극적으로 하페는 험난하고 고된 그 길 위에서 '비움의 배움'을 터득합니다. 문명 세계로 돌아가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마침내 그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나무보다 큰 키로' 거듭나게 됩니다. **AF**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드라마 커플이 현실로? '송송' 커플을 소개합니다.

때론 현실이 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아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부부가 됐죠? 지난 10월 31일, 백년가약을 맺은 커플의 환상적인 결혼식 풍경을 다시 만나보시죠.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특전사 태백부대의 유시진 대위와 의료봉사단의 강모연 의사. 극한의 환경에서 따뜻하게 피어 오른 젊은 군인과 의사의 로맨스는 작년 한 해 전국민을 열광케 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0% 가까이 올랐고, 중국에선 드라마 영상 조회수가 20억 뷰에 달했죠. '송송 커플'의 인기가 대단한 나머지 두 사람이 실제 커플이 되길 바라는 팬들도 적지 않았죠.

드라마 촬영을 함께한 친한 선, 후배 사이라고만 일축했던 두 사람의 순간들을 이제와 다시 보니, 정말 다정한 연인처럼 잘 어울립니다. 당시 송혜교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을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 전 2013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송혜교와 함께 출연했던 조인성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장을 찾아 "송혜교 씨를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는 정도로 송중기의 팬심이 대단했다는군요! 어쨌든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가장 큰 공은 <태양의 후예> 덕분일 겁니다. 당시 드라마 속 유시진(송중기)의 대사가 떠오르네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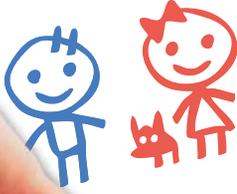
올해, 7월 5일 갑자기 두 사람은 열애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함과 동시에 '결혼'을 발표해 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3개월 후인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5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송중기의 친한 친구가 사회를 맡았고, 유아인과 이광수가 편지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축가는 송혜교와 친한 가수 옥주현이 알라딘 OST인 'A Whole New World'를 불렀습니다. 피로연에서는 박보검이 성시경의 노래 '두 사람'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박형식이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전국민이 사랑했던 드라마이니만큼, 송송 커플에게 쏟아지는 축복과 관심도 대단했죠. 두 사람은 으레 톱스타들이 종종 받는 제품 협찬을 거절하고, 직접 택시도와 웨딩 드레스를 구입해 입었습니다. 특히 송혜교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웨딩드레스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크리스찬 디올'의 2017 가을 오프 꾸뛰르 (고급 맞춤 제작 주문복) 컬렉션 제품입니다. 지난 9월, 파리에서 송송 커플이 포착되어 헤드라인을 도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디올의 아틀리에(공방)을 찾아 드레스를 피팅하고 구입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였답니다. 송중기의 택시도 역시 디올의 남성 브랜드인 디올 옴므의 수트입니다.



디올의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끝난 후, 단 하나뿐인 송혜교의 드레스를 위해 그린 스케치와 제작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본래 패션쇼에 등장했던 드레스는 검정색 벨벳 드레스였는데, 송혜교는 벨벳을 하얀색 미카도 실크로 바꾸고, 네크라인에 프랑스 자수가 새겨진 레이스를 달아 여성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 송혜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해와 관심과 사랑으로 축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11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로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두 사람, 이제 부부가 된 모습. 이걸 정말 실화네요! **AF**



생각하는 그림

실패를 축하합니다

#1 빨갛고 동글동글하며 날개가 없으며
화가 난 표정의 '새'를 새총으로 멀리 날려 알을 훔쳐간
돼지를 물리치는 게임 '앵그리 버드'.
핀란드의 모바일 게임회사 '로비오'가 만든 게임인
앵그리 버드는 터치를 통한 단순한 게임방법과
절묘한 게임 난이도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그간 '로비오'는 대형 개발사들의
하청을 받으면서 꾸준히 본인들만의 게임을 만들며
무려 51개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렇게도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결국 52번째 만에 '앵그리 버드'를 탄생시켰습니다.

#3 여러분 '실패'라는 단어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핀란드에는 자신의 실패를 공개하는
 아주 독특한 날이 있는데, 바로 '실패의 날'입니다.
 실패의 날은 핀란드의 한 대학교의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한 행사로, 주로 실패를 경험삼아 성공에 도달한
 유명인들이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소개하고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털어놓습니다.



#4 또, 인기 모바일 게임을 개발한 핀란드의
 '슈퍼셀'은 실패한 팀이나 사람에게
 '실패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독특한 전통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실패를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생각하게 되고,
 전보다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핀란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창업이 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5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실패를
 했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은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욱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실패라는 단어가 두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힘차게 나아가서 마침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AF**

담벼락

그 신아홉 번째 이야기 「만남」



제18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상병 송상민

맞후임

살아가면서 매년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듯, 군대에서도 우리는 여러 번의 만남을 경험한다.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특기학교에서, 그리고 배치를 받은 본인의 자대에서. 그 중에서도 군대 속 만남 중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맞후임과의 만남이 아닐까 한다.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니까.

작년 8월 무더위 속에서 입대를 하고 10월 말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18전비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당시 우리 부서는 매달 전역하는 병사가 있어 선임들은 나에게 후임이 연달아 들어올 것이라 했지만, 2달의 기다림 끝에 맞후임을 받게 되었다. 나와 학번은 같지만 1살이 어린, 동생이었다. 함께 근무도 서고 B.X도 다니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

맞후임도 점차 나를 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본인의 본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알아갈수록 내가 싫어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자신이 한 업무를 하나하나 생색낸다는 느낌, 혼잣말, 가끔 튀어나오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들. 대학교에서는 첫인상이 관찰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그런 만남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는데, 차차 알게 된 이 친구의 모습은 내가 기피했던 사람들의 유형이었다. 이런 느낌이 빈번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하면, 겉으로는 승낙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면서 다녀오고, 동기나 선임에게 불만족을 토로하는 날들이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 3월에 맞후임은 내가 있는 생활관으로 이사를 했고, 의도치 않게 24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그 친구는 내게 혼잣말 많고 생색을 많이 내는, 가끔은 이기적인 맞후임이었다. 하지만 언제 부터였을까.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 그 친구의 행동을 나쁘게만 보았던 내가 그 친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같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그 친구가 가는 말들이 피곤하기보다 활력을 준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부드러워졌다. 자기가 한 업무를 하나하나 생색을 낸다기보다 하나하나에 대해 칭찬을 받고 싶을 수 있다는 것, 혼잣말이 많아 피곤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받고 싶을 수 있다는 것,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수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방향으로 내가 그 친구를 대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더 열게 되었고 그 친구는 어느 순간 내게 군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맞후임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과거에 내가 인간관계 속 새로운 가능성을 일찍 잘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가 첫인상으로 사람을 잘 본다고 생각했던 나는, 만남 초반에 마음이 가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자주하고 정작 내게 먼저 다가와도 첫인상이 내게 호감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랬던 내게 이 친구는 엄청난 반례였다. 동시에 과거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 스쳐 지나가버렸던 친구들과라도 노력해서 만났더라면 처음에는 보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우정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가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군생활에서 개인만의 공간이 없기에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아야 하는 군대라는 시스템 속에서 생활했기에,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사람을 매일 보게 되었고, 그런 사람을 얻게 되었다. 군대에서 우리 곁에 있는 선후임 친구들에 대한 첫인상을 지우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바라보면, '함께 해서 제대로 쉬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군생활'이 아니라 '함께 해서 진정한 활력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군생활'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빈칸을 채워준 게임, 오델로



전술항공동맹단
계획처
상병 김성찬

만남. 만남이라는 단어처럼 새롭다는 말과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긴 힘들 것이다. 물론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나 은사와의 만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처럼 '새로운 무언가'에 만남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된다.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듯 나 또한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그때 친구가 나에게 한 가지 게임을 소개해 주었다. 오델로라는 게임이었는데, 서로 번갈아가며 돌을 놓으면서 뒤집어 가는 게임이었다. 그 당시 공부에 질려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친구와 그 게임을 주고받았고, 어느새 오델로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다. 공부도 내팽개치고 그 게임에만 열중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적도 떨어졌지만, 게임을 놓지는 않았다. 그만큼 깊게 빠져버렸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모 유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된 오델로 게임이 출시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그 게임 또한 즐기게 되었다. 게임을 통해 정말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한국에 협회가 있다는 사실과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 세계대회의 유무 또한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대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은 오델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게임도 해보고, 더 깊게 배워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임에 참석해서 처음 몇 경기를 연이어 진 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고 국내 대회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몇 번 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입단하여 프로 기사가 되었다. 입대를 앞둔 2016년 11월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세계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기억에 깊게 남는 경기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아마 오델로라는 게임을 접하지 않았고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있어 가장 적기 힘들었던 것은 특기나 취미 칸이 아니었나 싶다. 뚜렷하게 좋아한다거나 잘하는 게 없던 나는 음악 감상이나 독서, 영화 감상 등 그럴싸한 것들을 적어두곤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 생각 없이 알려준 오델로라는 게임과의 만남은 내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스스로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취미이자 특기가 되었으며 나에게 늘 비어있던 빈칸을 채워준 특별한 만남이 되었다.



제8전투비행단
237전투비행대대
일병 기도근

먼저 다가오는 만남은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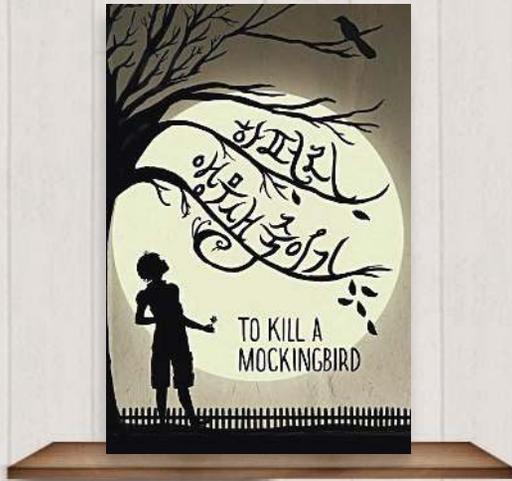
만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계획된 만남과 우연한 만남이다. 이 중 우연한 만남의 경우는 계획된 만남보다 강한 감정, 여운, 경험 등을 주곤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만난 적 없지만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는 이와 같은 만남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가을과 겨울 사이, 쌀쌀한 바람이 부는 밤, 나에게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던 이와 같은 만남이 있었다.

휴가를 나와 아파트 옆에서 전화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귀엽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야옹'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의 어미를 찾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귀여운 고양이 구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어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이 녀석의 다가옴에는 전혀 경계 의식도 없었고 오히려 익숙한 사람 본 듯 반가워하는 모습 같았다. 나의 발 옆까지 온 녀석은 나의 발에 얼굴을 비비며 '야옹'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는 나였지만 당황스러웠다. 먹이를 원하는 것인지, 자신의 어미를 찾아달라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점차 귀여움에 빠져들었다. 나도 모르게 손은 고양이의 머리에 가고 있었고 머리, 등 부분을 쓰다듬게 되었다. 고양이는 싫지 않았는지 그르릉 소리를 내며 나에게 더 밀착해왔다. 그리고 나의 다리에 매달리고 놀아달라는 표정을 지었다. 길진 않았지만 고양이와 놀아준 후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 녀석은 내가 향하는 곳으로 먼저 걸어가기도 하고 나의 옆에서 같이 걸어가기도 하였다. 집 앞에 도착한 나는 정을 붙이면 발을 떼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하며 안타깝지만 이별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날 고양이와의 짧은 만남은 나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었고 또 오랫동안 잊지 못할 하나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이는 얼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처음 본 상대에게 경계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물론 이 고양이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있어서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새끼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가옴을 받는 입장에서의 나는 최근 느꼈던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을 느꼈다. 처음보지만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이와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나도 이 고양이처럼 그럴 수 있을까?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며 이 고양이처럼은 아니지만 먼저 친밀감을 드러내고 호의를 베푸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가옴을 받는 입장을 경험해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한다면 괜찮은 만남을 성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우연한 만남은 힘들고 지칠 때, 오래가는 여운을 느끼고 싶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대나 준비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AF**



책 읽는 공간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지음
열린책들 펴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합니다. 제 성장기를 되돌아봤을 때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의 걱정거리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충격을 줄 만큼 큰 사건이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앵무새 죽이기>의 남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진 루이즈 핀치(스카웃)와 그녀의 오빠 잼 핀치는 메이콤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옆집에 사는 부 래들리라는 인물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의 두 남매는 집 밖에는 나오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상처를 가진 그를 이해하고 먼저 살갑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린 남매의 아름다운 성장기만이 아니고, 당시 만연해있던 차별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속의 메이콤 마을에서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만연합니다. 인종차별이 대부분 사라진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심하게 보이지만, 등장인물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 책에서 보이는 인종차별의 요소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흑

인들을 위한 교회와 백인들을 위한 교회가 따로 존재했고(백인들은 흑인교회에 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흑인들은 백인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 어린이들에게까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주인공 남매의 아버지 애틀커스 핀치가 변호를 맡게 된 톰 로빈슨 사건도 인종차별이 주된 원인입니다. 흑인인 톰 로빈슨은 유얼 가문의 딸인 메이얼드 유얼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 중 애틀커스 핀치의 증인 심문으로 인해 사실은 이와 반대로 메이얼드 유얼이 톰 로빈슨을 유혹한 것으로 밝혀지지만 재판부는 결국 톰 로빈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톰 로빈슨은 그 후 탈옥을 시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차별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남녀 성역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만 되면 가사분담에 대해 남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은 부엌에만 있어야지” 따위의 얘기를 꺼낸다면 시대에 뒤쳐진 사람이라며 여성들의 대대적인 원성을 사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에는 가정 내에서의 남녀의 성역할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랬듯 이때의 미국도 부엌일은 여자에게 100% 일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주인공의 오빠 잼이 요리에 관심을 보이자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동네 어른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또 주인공인 스카웃이 치마 대신 멜빵바지를 즐겨 입자 모두가 “아직 숙녀가 덜 되었다”면서 비웃는 장면에서는 ‘여자=치마라는 공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차별에 민감한 요즘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정조개념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 보입니다. 메이얼드 유얼의 아버지인 밥 유얼은 자신의 딸이 흑인과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자 딸을 구타하고, 이때 생긴 구타의 흔적이 톰 로빈슨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거짓 진술합니다.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상황에서 딸에게 먼저 손찌검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니 문득 주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생활하다보면 차별에 다소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등한 선진병영을 기치로 내걸고 변혁을 시도하는 군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F

글
병장 최장현
전술항공통제단 감찰안전실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_____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_____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_____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_____

12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7

December
Vol.474

월간 「공군」 12월호

잘 읽고 정답은
상단 엽서에 적어주세요~

Quiz

마감일 : 12월 30일까지

1. 2018년에 도입되는 공군의 신무기체계가 아닌 것은?
① F-35 ② 공중급유기 ③ F-22
2. 2017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최초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한 방공유도무기는?
① 미스트랄 ② 천궁 ③ 패트리엇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 정답** 1. ② 교육사령부 도서관 2. ② F-35B
당첨자 전남 순천 서정민 / 서울 도봉구 송두월 / 서울 구로구 이춘성 /
울산 북구 김인철



보내주신 독자엽서 중
매월 추첨을 통해 당첨되는 분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337

안보를 지키는 금메달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험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 / 테러범 / 외국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 / 방산스파이 / 보안사고(위반) / 군관련 제보

㉟ 상금내역

간첩선. 간첩 : 최고 20억원
테러 관련 신고 : 최고 1억원
군 관련 제보 : 최고 5천만원

🕒 신고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
영상공중전화 신고 '그린비' 및 'KT' 기본화면